

2007. 8. 23 ~ 2007. 10. 18

아래에 연재할 글은 지난여름 구청에서 있었던 소소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본 기록은 이번 가을 구청 기관지 게재를 목표로 쓰인 글이며,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의 심기를 배려하여 기록에 남긴 모든 부서명, 인명, 지명은 허구임을 밝혀둔다.

말하는 벌레

사건의 발단은 초여름 구청장의 휴가에서 시작되었다. 아스팔트를 떠나 야생의 엄혹한 질서가 지배하는 수목원에 다녀온 구청장은 간만에 휴가가 끝난 기념으로 구청을 한 바퀴 순회하고 구청장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재를 맡으러 온 총무과장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중얼거림을 흘렸다.

“민원실이 좀 삭막하지 않나?”

사실 무시해도 그만인 중얼거림이었지만 구청장의 잠꼬대마저도 흘려들을 수 없는 총무과장은 그길로 총무과 회의를 편성하고 그날 저녁 민원지적과장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답이 세 번 울기도 전에 민원실 앞에 화분이 1톤 트럭 반절 분량 배달되었다. 그 화초들의 위광은 실로 찬란한 것이었고 지적계 공익 1인의 말을 빌리면 ‘민원실에서 일하는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 사탕수수들에게 햇살을 쬐이고 물을 줘야 하는 민원실 공익들과 계약직들에게는 아니었겠지만 여하튼 그 풍광은 가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민원계장 역시 처음에는 민원실의 이 창세기적 변화에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열대 우림과 같이 우거진 화초들이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야 만다. 그것은 화초들에 이름 모를 벌레들이 꼬인다는 것이었다. 그 벌레들은 사실 있건 없건 민원을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가끔 민원실을 찾는 구청장 혹은 그 윗라인의 ‘손님’들에게 벌레들의 모

습이나 뽕뽕거림은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민원계장은 밤낮으로 해결책을 생각해 봤으나 해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다. 문제의 근원은 화초들이었고 그 화초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민원실에서 벌레들을 몰아낼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계장은 딜레마에 봉착하는데 화초는 구청장의 신성한 의지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그에게 그것은 마치 선악과와 같이 불가촉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는 에프킬라 등의 화학 무기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혹시라도 화초에 모종의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은 자신에게까지 미치리라는 것을 민원계장은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온 타협책으로 휘하 공익 5명에게 파리채를 주고 벌레를 보이는 대로 살해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공익 5명에게 지급된 파리채는 한 개 뿐이었고 공익들은 자체 회의 끝에 지난달에 들어온 막내가 틈나면 한 바퀴 돌면서 벌레를 잡는 척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여느 날처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던 구청장은 민원지적과장이나 만나서 커피나 한 잔 때려야겠다고 결심하고 구청장실을 박차고 나선다. 같은 시간 이 소식을 포착한 민원계장은 계약 직원들에게 커피를 탈 것을 지시하며 구청장의 불시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잘 만들어진 커피, 적절한 실내 온도, 거기에다 능숙하게 ‘일하는 척’을 하고 있는 공익들까지.

그 ‘순조로움’은 그들의 마음속에 ‘방심’을 유도하였고, 그 ‘방심’은 우거진 화초 속에 숨어 있는 벌레들의 존재를 잊게 하였다. 적어도 눈치 없는 벌레 한 마리가 화초에서 미끄러져 반쯤 퇴화된 날개로 활공하다가 구청장의 커피에 45도 각도로 잠수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담이지만 벌레를 구청장이 마셨느냐 혹은 마시기 직전에 발견했느냐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다양한 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날 저녁 간만에 구청장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분노한 구청장의 일장 연설로 시작되었고 과장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여야 했다. 실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모색되었고 회의장, 뒷풀이 회식, 2차 노래방에 이르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총무과장이 내놓은 ‘최종해

결'이 채택되었다. 이 '최종해결'은 화초를 비닐랩으로 씌운 다음에 치클론B 가스... 아 정정, 에프킬러로 벌레들을 박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가공할 계획은 목요일 아침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목요일 아침, 작전을 위해 30분 일찍 출근한 공익과 비정규직들은 모든 화초에 비닐랩을 씌우고 에프킬러를 지급받고 초조하게 민원계장의 발포 아니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원지적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민원계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순간 계장의 귓속에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장으로부터 이 작전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땅에 떨어진 민원실의 위상을 되살릴 것이니 하는 이야기를 워낙에 반복해서 듣느라 귀가 약간 멍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웅웅거림은 자연스러운 잔소리에 대한 면역 작용치고는 묘한 이질감이 드는 그런 진동이었다. 계장이 그 이질감에 문득 책상 위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컷가에서 부르르 날개를 떨고 있는 벌레 한 마리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 진동은 벌레만큼이나 명확한, 하지만 음성으로 그의 귓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쏘지 마세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순간 민원계장의 사고 흐름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아이씨, 웬 벌레가 귀에] -> [어? 근데 벌레가 말을 하네?] -> [벌레가 말을 하다니 특이한 일이군!] -> [아 하필 민원실에서 특이한 일이] -> [아 특이한 상황은 일단 보고 해야지] -> [근데 서면으로 보고 해야 되나?]

계장은 일단 정신을 수습하고 과장에게 가서 그에게 있었던 기묘한 일에 대해 구두로 보고했다. 과장은 잠시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딴 벌레 같은 소리를 하려고 구청장이 기대하고 있는 작전을 중단시키다니! 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의 공직 인생을 통틀어서 벌레가 말을 한 사건은 확실히 특이할만한 일이었고 구청장에게 보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구청장실로 전화를 연결했다.

구청장은 잠시 동안 노골적으로 '이딴 벌레 (같은)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도 잠시 벌레가 말을

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그에게 모종의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영감’은 구청장이 생각하는 ‘원대한 야망’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구청장은 흥분을 겨우 억누르며 과장에게 짧고 분명하게 지시했다.

“작전은 잠시 보류하게. 내가 직접 만나보겠네.”

벌레 대표와 구청장이 구청장실로 들어간 지 삼십분이 지났다. 그 사이 ‘커피 좀 들여오게’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커피를 한 잔 타 가야 할 지 두 잔 타 가야 할 지 수행비서가 잠시 고민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 30분 후 역사적인 계약서 한 장과 함께 둘은 구청장실에서 나왔다. 구청장의 으리으리한 직인과 벌레의 어느 발인지 더듬이인지 모르는 인주 자국. 아마 유사 이래 최초의 벌레-인간 간 계약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는 지금도 구청 총무과 인사계 어느 구석 서류철에 귀중히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말살 직전에 처했던 벌레들의 생존권, 그리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검은 야욕,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 역사에 남을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였다. 그것도 6개월짜리.

“전 사실 그게 일괄 계약—그러니까 구청과 벌레전체의—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하게 될 벌레 3468명의 계약서를 다 작성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애들의 인적(?)사항이 없으니까 곤란하잖아요. 일단 호적계에서 애들 임시 등록을 해두기로 했죠. 일단 생년월일이랑 주소랑 6개 다리랑 더듬이 날인 정도만 받고 말예요. 그게 일 안하는 벌레까지 합쳐서 6000명쯤 된다고 하던가. 저희도 그 때 죽을 뻔했는데 호적계 애들은 진짜 폭탄 맞은 거죠.” (총무과 공익 A와의 인터뷰 중)

계약의 내용은 벌레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청 각 부서에 배정되어 일을 해야 하고 그 대신 구청에서는 월 2000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청 예산에 벌레 3468마리를 고용할 예산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월급은 구청에서 (특별히 마련해준 적은 없지만) 벌레들의

숙소 이용료와 구청에서 일하게 되어 먹이를 구할 시간이 없어진 벌레들을 위한 식사 제공 등의 명목으로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문제될 것이 있었는데 어린 벌레들이나 알을 배고 있는 벌레들은 어떻게 생계를 해결해야 되느냐의 문제였다. 그것에 대해 호적계장은 인간의 지혜를 빌려주었는데 남성 가장 벌레를 중심으로 한 일부일처제의 가족을 구성하여 그 단위로 생계를 해결하자는 그의 오랜 직업적 노하우가 그것이었다. 더더군다나 일을 하게 됨으로써 보금자리를 돌보거나 새끼를 돌보는 일을 ‘누군가 전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인간들은 여성 배우자에게 맡겨서 해결한다고 자랑스럽게 호적계장은 설명하였다. 모든 벌레들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벌레 사회 속에 급속도로 번지게 되었고 곧 아침에 아이디카드를 목에 매고 출근하는 남자 벌레와 그를 배웅하는 여자 벌레와 어린 벌레들을 구청에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몇몇 벌레들은 피고용을 거부하고 옛날처럼 살기를 원했고 노동과 가족화, 집세 납부 등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구청 환경과에서는 이 비등록 벌레들을 구청에서 몰아내는 일을 해야만 했고, 곧이어 구청 내 쓰레기통에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먹이를 구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기 위해서이다. 지금은 교통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군도 작년에는 구청 쓰레기장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한다.

“우리 과에 원래 586마리... 아니 586명이 배정됐었는데 처음에는 야 이걸 어디다 쓰냐 싶었지. 근데 의외로 청소 같은 거 시키니까 어떻게 어떻게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비비적거리면서 하는데 잘하더라구? 그리고 그 소형 키보드랑 그런 거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말할 것도 없지. 야 벌레들 없을 때는 어떻게 일했나 싶더라구. 물론 이름 외우기는 힘들더라. 포기했지 뭐. 그나저나 애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도 100배나 받는 공익 시키들은 맨날 뻘짓거리기나 하고...” (지적계장 이모씨와의 인터뷰 중)

사실 벌레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임시 등록 절차는 있었지만 딱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신원 등록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벌레들은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었다. (언젠가 후임 벌레에게 물어봤는데 벌레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인간의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 노동환경에 벌레가 적응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곧 그러한 것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벌레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벌레의 법적 지위 변화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하간 현대 과학 기술과 나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 하였다. 구청 곳곳에 아이디카드 판독기가 설치되었고 벌레 개개인에게 신원 정보가 입력된 목걸이형 소형 아이디카드가 발급되었다. 출근부에 발도장을 찍으려고 길게 줄을 선 벌레들의 모습은 초창기의 기록 사진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더더군다나 벌레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관련 업체들을 크게 자극하여 벌레용 키보드와 모니터를 구청에 납품하게 하였고 이것은 놀라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 놀라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인간 계약직에 대한 대량 계약 연장 거부와 임금 인하로 연결되었다. 벌레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일에 벌레들이 투입되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부분에 공익들이 투입되었다. 구청의 인건비 절감은 기록적인 것이었고 구청장의 야망은 순조롭게 실현되고 있었다.

벌레들의 업무가 돌아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우리는 출근길에 어마어마한 양의 방송사와 신문사의 인간들이 구청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구청에서 일어난 소소한 해프닝은 어느덧 전국적인 소소한 일상으로 번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벌레가 말을 한다는 사실, 또 일을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타기 시

작하면서 사태는 사회 전반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9시 뉴스에 우리 구청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벌레들이 뉴스에 나온 것을 시작으로, 벌레들이 의외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싼’ 비용으로 그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간지 경제면을 메우기 시작했다. 부동산 소식지에는 벌레들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담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고, 벌레 사무용 기기 cf가 드라마 사이사이에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이야기들도 매체를 타기 시작했다. 가령 벌레들이 어떻게 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가라든가, 노동하기 이전 벌레들의 생활이나 문화에 관련한 것들이라든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요한 **사실**은 벌레가 말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을까. 여튼 오히려 체액 유형에 따른 벌레들의 성격 분석이나 벌레와 함께 셀카 찍기 같은 포스트들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은 잔업 특근까지 더해야 겨우 하루 12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면서도 1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 귀족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옆라인에서 벌레 노동자들은 16시간 일하고 5000원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대체 파업이 웬 말이란 말인가? 거기에는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적인 좌익 포퓰리즘이 어찌고저찌고... (조x일보 사설 인용)

이러한 뉴스들과 함께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집주인들과 벌레들 사이의 전월세 계약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벌레들의 보금자리가 발각되기 시작하였고 벌레들은 ‘돈을 내거나 쫓겨나가거나’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가족 숫자가 많거나 일할 능력이 마땅찮은 벌레들은 야산이나 국유지에 싼값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길바닥

에 나왔은 벌레들도 있었다. 특히 강남 지역에 살고 있던 벌레들은 살인적인 집값에 담뱃불 등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가끔 신문 사회란에 실리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서 임시법이 통과하면서 벌레들이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가 금지되고 지정된 영업소에서 벌레용 음식—사실 내용적으로 쓰레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시행령은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통과 쓰레기장 등에 독성 물질들이 살포되기 시작했고 면역력이 좋은 개미나 바퀴벌레 일부는 야밤에 몰래 쓰레기통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벌레들은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벌레 푸드를 사먹게 되었다.

대중 버스에 무임승차하는 일부 ‘암체’ 벌레들로 버스 회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도권 지역 벌레 버스 이용료가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벌레들이 창문이나 뒷문 등으로 몰래 올라타는 비양심적 행위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관계 부서에서는 벌레들에 대한 시민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 창문에 방충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연합x스 인용)

먹을 것과 잘 곳을 위해서 벌레들은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게도 근로기준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최저 임금 비슷한 것도 적용되지 않았다. 많은 벌레들은 단지 안전 용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용광로 밑이나 크레인 위, 유독 물질이 가득찬 방에서 기어다녀야 했다. 그렇게 일해도 대부분의 벌레들은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없었고, 사채의 유혹에 러쉬x캐쉬를 불렀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조폭들에게 쫓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현실에도 많은 벌레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였다. 예전에는 길가다가 채수 없으면 맞아 죽기도 하고 방역이란 이름 아래 독가스가 살포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적어도 그렇게 죽을 염려는 없지 않은가. 혹은 예전엔 정말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

도 지금은 말이 통하는 상대로 인정은 되지 않나 월급도 받고 말야. 벌레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벌레 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벌레들은 과거 단군왕검의 건국 이래로 한민족의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존재하여 왔고 국가와 민족이 위협에 처했을 때 항상 몸과 마음 바쳐 충성을 다해왔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을 괴롭히던 모기들의 항일 투쟁이 유명하거니와 (중략) 특히 메뚜기들은 기근에 자신의 몸을 바쳐 백성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었다고 한다. 실로 살신성인이 어찌고저찌고... (벌레용 국정 국사 교과서 인용)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혹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법 제도 역시 빠르게 움직였다. 임시 국회가 소집되고 가장 먼저 ‘벌레등록제’가 처음 통과되었다. 그에 따라 벌레들은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등록을 해야 했고 등록을 마친 벌레들에게 등록증이 발급되고 지문 아니 족문과 DNA정보가 수집되었다. 벌레의 법적 지위는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함부로 살해하거나 인신을 구금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물론 이어진 ‘벌레들의 주거와 생활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집값 납부를 거부하거나 쓰레기통 등에서 음식물을 약취하는’ 벌레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즉결 처분을 선고/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는 했다. 이어 벌레 제거용 약품의 ‘민간’ 유통이 금지되는 등의 입법이 이어졌다.

벌레들의 노동에 대한 법 조항 역시 마련되었다. 기본적으로 인신 구금에 근거한 노예 노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나머지 모든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맡기되 벌레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교육 부총리의 의견에 따라 어린 벌레들의 일주일의 기초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유충들의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였다. 이에 따라 유충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기존 생물학적 견해에 따라 애벌레-번데기 기간 전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일주일 기초 교육기간으로 봐야한다는 신이론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매미의 애벌레 시기가 수년에 이른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후자의 이론에 비중이 실리게 되었고 결국 유충 기간은 기초 교육 기간 일주일로 보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이래저래 불가피하게 구청 밖의 이야기를 좀 길게 다루게 되었다. 다시 즐거운 구청의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지정계에서 일하던 벌레 모모 씨의 개인사를 통해 직장과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벌레들의 일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바퀴벌레 모모 씨가 지정계에서 신고 접수 업무를 맡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 경이었다. **말하기 전까지** 그녀의 기록은 (당연하게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 구청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말을 시작한** 지난여름, 구청 방침-일부일처제의 가족을 구성하라는-에 따라 이웃 바퀴였던 병구 씨의 배우자로 등록되었고 신고된 거주지인 민원실 B-4구역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벌레들의 가사나 육아에 대한 보도 자료 혹은 연구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연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십 수 시간을 일한 벌레들이 다음날 비교적 쉿쉿하게 다시 일하러 오고, 어제 기계에 깔려죽거나 퇴직한 벌레를 대신하여 허물에 체액도 덜 마른 듯한 어린 벌레가 새로 들어오는 일을 우리는 일종의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음.. 보통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전날 사온 음식을 꺼내죠. 요즘 식료품 판매소에서는 맥x널드에서 (필자 주: 엄밀히 말하면 맥x널드 쓰레기통에서) 나온 음식물을 파는데 그게 좀 싸서 그걸 많이 먹어요.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큰 문제야 있겠어요? 그걸로 애들 도시락이랑 아침이랑 남은 걸로 애들 먹을 저녁 차려두고... 학교 보내고 나면 부리나케 여기 오는 거죠. 와서 계

장 책상에 걸레질도 좀 해주고 구석에 먼지도 좀 쓸어내고 하면 업무 시작이고 뭐 10시 퇴근 때까지 뭐 전산 입력...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판매소 들러서 내일 먹을 거 사고 청소하고 나면 하루 금방이죠 뭘.”

여하튼 매일매일 음식물 판매소에서 줄을 서서 음식물 찌꺼기 아니 벌레용 음식을 구입하고 더럽고 습한 거주지를 청소하고 20~30마리씩 따라 다니는 어린 벌레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만 이 과정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성 벌레들에 의해 부담되었고, 그 비용이 그 배우자들의 임금에서 부담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현실 속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이혼한 벌레들, 부모가 없는 벌레들 등은 큰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개별적인 불행은 안타까운 일이나 기본적으로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거나 책임 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벌들이나 딱정벌레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난 동성애에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위협하는 반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기는 했지만.

“일하면서 힘든 거라면... 다른 거야 뭐 다 집어치우고 뭇보다도 이것저것 걸레질이니 커피니 화분 정리니 복사니 팩스니 잔심부름까지 다 시키면서 나중에 가서 일 좀 밀리면 ‘모모 씨, 요즘 일처리가 좀 굵든 거 아냐?’는 식으로 말하면 하루 종일 기분 잡치죠.”

모모 씨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녀의 이혼 서류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적혀있다. 그 배우자가 직장에서 관리자와 성격을 맞추기 힘든 것만큼이나 그녀가 배우자와 성격을 맞추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성격 차이는 벌레 가정 내에서 전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이것이 이혼으로 나

타나는 것은 드문 케이스였다. 그것은 이혼을 한 여성 벌레들이 일단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도 있었거니와 벌써부터 벌레 사회 내부에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유입되고 혹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모 씨는 10월 중순 경 병구 씨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3일 후 구청 임시직 채용에 응모하였다.

처음에 구청에서는 호적계의 방침에 따라 남성 벌레들 위주로 임시직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구청 내에 벌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생계비—특히 유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이후 교재비 등이 새로 가계부에 오르게 되었다—를 메꾸기 원하는 주부 벌레들 혹은 미혼 혹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벌레들의 구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대적으로 여성 벌레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월급 명세서 자료에 의하면 모모 씨의 월급은 그 전임자 월급의 70% 정도였다. 남성 벌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모모 씨에게는 낮은 월급이, 전임자에게는 계약 연장 거부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돈 문제가 가장 크죠. 이사 간 곳은 전에 살던 B-2보다 좁기도 좁고 습기도 많이 차지만 그래도 값이 싸서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지금이야 빛도 좀 지긴 했는데 글썽 큰애들이 취직하고 독립하고 나면 그래도 좀 나아질 거 같아요. 애들한테 미안하죠. 고생도 고생이거니와 뒷보담도 기초 교육밖에 못 시켜준 게. 요즘 기초 교육으로 취직할 곳이야 뭐 뻘한테 그렇다고 학비를 대줄 형편도 안 되고.”

그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여기까지이다. 그해 겨울 그녀와 구청 사이의 근로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고 그녀는 직장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안가 구청 거주지 중 가장 임대비가 저렴한 E구역으로 이사하게 된다. 그리고 1월 말 E구역에서도 퇴거하였고 공식적 거주 기록에서 그녀와 아이들의 기록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이듬해 3월에 있었던 등록 현황 조사에서 누락됨으로서 최종적으로 그녀의 등록은 말소

되었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 둔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임신을 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설, 카드빚에 쫓겨 야반도주했다는 설, 외계인이 납치했다는 설 등등. 그 의혹들이 사그라들 때 즈음인 다음해 봄, 눈이 녹으면서 수천 마리의 벌레 시체들이 구청 인근 거리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는 쉽게 그 시체들이 **그해 겨울**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녀 역시 **그해 겨울** 있었던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을 그만두고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벌레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해 여름** 증권가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라졌다. 하나는 개미투자자인데 공교롭게도 개미들의 대부분은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주가 하락이란 단어였다. 벌레용 식품 업체나 벌레용 사무기기, 생산 설비 등 벌레 관련 종목들의 매출이 나날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벌레 고용을 통해 생산 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인 다른 기업들 역시 나날이 상한가를 치고 생산 설비를 늘리며 뜨거운 여름을 주도했다. 이러한 상승세를 타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오직 뿌리는 살충제를 만드는 회사만이 유일 할 하락가를 기록할 뿐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여름의 한창 더위가 꺾이고 **가을**바람이 불어올 즈음이었다. 가장 먼저 이상 증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벌레 관련 용품 산업이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벌레 고용과 생산 설비 확충이 대충 끝남에 따라 끝도 없어 보이는 수요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또한 신규업체는 그럼에도 계속 유입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갔다. 영업 실적은 눈에 띄게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관련 종목 주가는 폭풍 직전의 고요처럼 정체 되었다.

그 분위기를 탄 것일까? 다른 기업들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벌레들을 고용하고 벌레용 생산 설비를 갖추는 때는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이 늘어나는 듯하였으나 막상 다른 기업들도 **너도 나도** 벌레들을 고용하게 되자 그 경쟁력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생산 설비를 늘리고자 은행에 진 빚의 이자와 늘어난 생산라인을 타고 늘어만 가는 재고품뿐

이었다. 빨간 글자를 찾기 힘들던 주식 시장이 순식간에 기묘한 정체 상태에 빠졌다.

[기자] 오늘 2시경, 최근 경영 부실 논란에 중심에 있던 버그텍이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벌레 생산 기기 납품업체인 버그텍은 최근 수요 급감에 의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경영진은 모두 퇴진한 상태이고 경영권은 채권단에게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사장 A모씨는 현재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장의 처삼촌으로 알려진 B회장의 B그룹 측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언급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경부장관] 최대한 빠른 대처로 (경제에) 타격이 없게.... [기자] 울여름 벌레 특수와 맞물려 지난 분기 매출액 10위권에 들었던 버그텍의 부도가 자칫 재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B그룹 본사 앞에서 Y트..zzzzz (케이블 뉴스 인용)

10월 중순, 굴지의 대기업 B그룹 계열사의 부도는 이 기묘한 정체를 단숨에 깨버렸다. 버그텍 사장은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날렸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미처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출국 금지가 떨어져 몇몇은 빌딩에서 몸을 날렸다. 위기에 처한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모든 대출 계획을 동결하고 자금 회수를 지상 과제로 설정했고 사채업자들도 역시 수금을 위해 해결사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줄사탕처럼 부도와 파산이 이어졌다. 이 파산의 행진은 버그텍의 모그룹인 B그룹 도산과 함께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줄파산에 힘입어 주가는 사상 유래 없이 급폭락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점점 떨어짐에 따라 여의도 금융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주주총회에서는 경영자들을 성토했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경영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을 탓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돈만 잔뜩 받으면서 어떠한 예측도 내놓지 못한 국영 연구소의 경제학 교수들의 뒷담을 짚고 경제학 교수들은 부족한 시간과

예산을 탓하였다. 주요 언론은 날을 만난 듯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은 긴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 빌딩들에서 투신자살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권가를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B증권 빌딩 관리자에 의하면 최근 한주만 해도 투신 자살자가 10명이 넘으며 그중 일부는 소리를 안 지르고 뛰어내려 자칫 했으면 아래에 지나가는 시민과 충돌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관계 기관에서는 빌딩 옥상의 안전 철조망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빌딩들의 옥상을 폐쇄하거나 자살자들에게 다른 곳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연합x스 인용)

긴급 대책 발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가들과의 오찬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나름 분석하여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어렵고 난해한 경제학적 마법 용어가 난무하는 브리핑은 사람들을 지루하고 짜증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제학 논문이 그러하듯 ‘이유는 잘 모르겠다’로 귀결되는 이 브리핑은 기업가들과 기자들의 인상을 찌푸려지게 하였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대통령의 말에 모두의 지루하고 졸린 표정은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다. “고임금, 짧은 노동시간, 경직된 노동시장, (작은 목소리로) 정부 규제, 이러한 것들이 현재 기업 경영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에 처음에는 놀란 눈빛들이 서서히 감동과 경의의 눈빛으로 변해갔다. “정부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구조조정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날 때 즈음에는 재벌 총수들을 시작으로 내빈들 모두가 일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개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기립박수와 눈물과 함께 대책 발표는 끝

이 났다.

발표 이후 각 기업의 구조조정 팀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예비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의 경영진은 기업의 **전통과 경영 노하우**—지금의 사태를 불러온—를 보존하기 위해 제외되었다. 관리자 몇몇을 짜를 계획을 세웠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다. 기획안 마감 시한은 다가오고 인사과 직원들의 고뇌는 깊어져 갔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계약 기간이 3달이나 남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단 말씀이죠? (...) 안타깝게도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 벌레와 인간 사이의 계약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 아 물론 대출이나 할부계약은 예외죠. (...) 아 이 양반 정말 끈질기시네. 노동청 가보던가 거기도 **똑같아요**. (...) 아저씨 민증 있어요? 민증 있냐구... 권리 같은 소리하고 자 빠졌네 (...) 아냐 내가 짤랐냐? 왜 나한테 난리냐고 양?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통화에서 인용)

인원 감축은 기업에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고리에 집중되었다. 특히 벌레들은 이러한 구조정리사냥의 주된 타겟이 되었는데 특별히 퇴직금도 없고 계약 해지 과정이 인간과 비교했을 때 실로 간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벌레들은 직장에서 내몰렸다. 푼돈을 위로금조로 받고 회사문을 나서는 그들의 머리 위로 컷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벌레들은 이번 달 주택 임대비를 걱정해야 했고,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했다. 주택소유자들은 요즘 벌레들이 집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베짖이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애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벌레 음식점 주인들은 오랫동안 보관하여 벌레들조차 먹지 못하게 된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다. 길에 떨어진 소똥이 없나 매일 땅을 보며 걷는 쇠똥구리가 답글을 달았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직장에 남은 벌레들은 떠난 벌

레들의 몫까지 일하느라 매일매일 밤을 새며 일하며 살아갔다 혹은 죽어갔다. 직장을 떠난 벌레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일용직이라도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다가 죽어갔다 혹은 살아갔다.

최초의 벌레들의 집단행동으로 기록된 사건이 마포구 벌레 음식 판매소에서 벌어졌다. 굶주림에 지친 벌레들이 썩은 음식이라도 내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잠시 무료 배급을 고민해봤지만 벌레 음식 판매 업체의 로비에 의해 고민을 깔끔하게 접었다.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벌레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느니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업체 사장은 당당하게 외쳤다. 정부에서는 아사 직전에 놓인 벌레들을 위한 최소한의 급식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벌레들을 위한 집단 임시 수용소를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눈 내리는 야산 중턱에!

우리 평생을 일만 하고도 / **헌신**처럼 버려질 때 / 그 누가
눈물 삼키며 / **고개** 숙이고 받아들일까 (그해 겨울 구청 옆 골목. 어느 하루살이의 노래 녹취의 일부)

눈이 녹고 날이 풀리면서 경기도 풀리기 시작했다. 다시금 주가는 자리를 찾고 기업은 신규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기적절했던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자족적인 분석을 시작하였다. 파산한 기업을 인수하여 더욱 더 규모가 커진 **재벌**들은 이러한 정부에 대해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생색은 지들이 내고’라며 비아냥거렸다. **경제학자**들은 놀라운 시장의 힘을 찬양하였고 언론들은 다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체 이러한 위기가 **왜** 찾아왔고 **왜** 물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입을 가진 사람들은 제각기 여하튼 모든 것은 자신들의 덕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었다. 물론 살아남은 자들은 말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벌레들은 지금까지 열악한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버텸다. 그것은 자신들이 더 이상 **벌레** 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갑자기 날아든 파리채나 광역 살포되는 살충제에 **벌레** 같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

을 거라며 힘든 오늘을 버텨왔다. 그러나 쌓였던 골목골목마다 눈이 녹으며 수천수만의 벌레들의 시체들이 강을 이루며 졸졸 흐르자 벌레들은 그 모든 희망이 산산히 깨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해 겨울**은 끝나고 **봄**이 찾아왔다. 벌레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구청 벌레들이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 벌레들이 축구를 한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생소함과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실 벌레들이 말도 하고 일도 하는데 축구를 하는 것이 딱히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먹고 자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 벌레들이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그것도 **분노**한 벌레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축구라는 사실은 그 놀라움을 더해 주었다. 어찌되었건 초봄, 구청 벌레들 사이에서는 축구가 유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 주차장 한 켠에서 벌레들이 축구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 구청장은 벌레들이 그들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호뭇**해하였다. 개인적으로 축구팬이기도 했던 그는 벌레들에게 축구공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런데 벌레들이 퇴근 후 축구 경기를 위해서 잔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의 호뭇함은 **당혹**스러움으로 변하였다. 구청장은 이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다음날 조례에 일장 연설을 토해내었고, 그날 저녁 아침의 일장 연설이 집단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 당혹스러움은 **분노**로 변하였다.

“음 사실 처음엔 축구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지금은 좀 재미있긴 하죠. 그것보다는 동료들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전에는 창구에서 혼자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를 뛰다 보면 내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도 종종 들고. 생판 남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언갈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끝나고 뒷풀이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구청FC 미드필더 인터뷰 발

취)

꽃꽂이, 요가, 당구, 스타 등등 온갖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형태로든 벌레들은 뭉치기 시작했다. **흩어진** 벌레들은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즐거움을 주어왔지만 **뭉친** 벌레들은 구청장의 근심을 더해 주었다. 꽃꽂이를 하는 것 자체는 구청장에게 어떠한 불쾌함도 주지 않았지만 중세 동양 꽃꽂이연구회 회원들이 12시간 동안 릴레이 면담 요청으로 관리자의 진을 빼놓았다는 이야기는 구청장을 슬프게 하였다. 벌레들이 퇴근하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에 구청장은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마재윤 전략 연구회에서 관리자의 욕설에 항의하는 자보를 붙였다는 소식은 구청장을 두렵게 하였다.

곳곳에서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관리자들은 이들의 활동을 막고, 징계를 먹고, 계약을 해지시켜서 이 **불온한** 흐름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들의 흐름이 부서를 타고 사무실을 타고 점점 커질 뿐이었다. 이들의 소소한 반란 역시 점점 커졌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 건설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구청장의 **근심** 역시 구청장에만 머물지 않고 라인을 타고 공장을 타며 구청장의 골프 모임 공동의 근심이 되어 갔고 그 크기 역시 솜사탕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 이상의 서적들은 비록 **합법** 출판물이나 연구자가 개인적 연구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등이 아닌 벌레 같은 아니 벌레를 비롯한 노동자들이나 학생들이 **독서 모임**, **세미나** 등을 목적으로 구입, 소지, 열람하는 것은 **국가 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존 판례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 (관련 판결문에서 발췌)

뺏따킴이 지역사회에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이 이때의 일이었다. 뺏따킴은 구의 중심가에 있는 주유소집 아들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업을 이어받아 주유소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젊

은 시절부터 급유기보다는 전기 충격기, 주판보다는 그를 유명하게 해 준 **뺨따**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가업인 주유소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휘발유파라는 마피아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가 구청장의 골프 모임에 초대 받게 된 것은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어묵공장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겠다고 굴러다니던 콩벌레 돌돌 씨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한 채 골목에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구청 축구 모임의 스트라이커인 메뚜기 폴짝 씨 역시 무릎이 부러진 채 야산에 묶여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의 소문은 벌레들을 순식간에 경직시켰다. 거기에 온갖 소문들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괜히 **날뛰는** 벌레들 근처에 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야산에서 **뺨따**질을 당할 것이라는 등의.

“산에 올라가긴 했는데... 뺨따질이라뇨?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뭐랄까. 음 형사님 권투 좀 아십니까? 그냥 뭐 야구를 몇 번 들렸다는 거죠.” (관련 수사 기록 중 발췌)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벌레들에게 노조 설립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불법** 활동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는 정부의 으름장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체포되는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불법이라는 것은 벌레들에게 공포와 함께 어떠한 신성불가침의 권위에 자신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일종의 **외경**심을 자극하였다.

공포와 **분노**의 기묘한 균형은 4월말로 접어들면서 공포(혹은 외경)가 더 우세하게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직공장의 사소한 반란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불온한 벌레들을 **고무** **땃굽**으로 갈아서 뭉겔 듯이 날뛰는 뺨따킴과 친구들의 무용담 역시 지역 사회 내에서 살이 붙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달 30일**....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그러니까 지난여름까지는—자연에서 살아왔던 벌레들에게 그것은 해답이 아니었다. **엄혹한** **자연**의 질서, **엄혹한**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질

서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오랜 체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벌레들은 **인간들**의 질서가 엄혹한 자연의 질서를 대체하고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 왔다. 적어도 벌레 등록제가 시행되고 부터는 파리체에 모기약에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일은 없지 않았던가.

분명 **그해 겨울**의 사태는 벌레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질서는 아니었다. 자연에서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혹하게 벌레들은 학살당했다. **법**의 사각을 노린 잔인한 폭력이 벌레들을 유린했고 유린하고 있다. 하지만 엄정하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 법은 마침내 벌레들에게도 평등하게 삶과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법에서 허용하는 온당하고 타당한 절차를 밟아 주장한다면 그해 겨울의 교훈이 반영된 새로운 질서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며 **타당**한 절차! 4월 30일, 뭉치기 시작한 벌레들은 이 결론에 도달하였다. 벌레들은 4월 30일, 각 지역에서 평화적인 행진과 청원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분명히 나폴레옹 법전의 목적은 재산—부건적인 재산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법전의 조항은 약 2000개인데, 그 가운데 노동과 관계있는 조항은 겨우 7개 뿐이고 800개 가까운 조항이 재산을 다루고 있다. 노동조합과 파업은 금지하지만, 고용주 협회는 승인한다. 법전의 조항에 따르면, 임금에 관한 법정 분쟁에서 고용주들의 진술은 신뢰하지만 노동자들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그 법전은 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것은 재산 소유자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리오 휴버만, 책벌레, 190쪽

이 지역에서도 벌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청을 중심으로 수많은 벌레들이 대로에 모였다. 수천만 마리의 거대한 흐름이 거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8시간의 노동, 8시간의 휴식, 8시간의 자유” 행진

하는 일개미들은 거대한 플랑을 이고 앞장을 섰다. “우리의 바램은 보람찬 평생일터” 대부분 지난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하루살이들도 구호를 외쳤다. “공동 육아 시설 법제화! 모든 벌레에게 동등한 임금을!” 모모 씨의 동료들도 피켓을 들었다. “음식 값 인하하라! 실직자에게 급식을!” 항상 땅만 보고 걷던 쇠똥구리가 간만에 고개를 들고 걷고 있었다. “CCTV 없애 주세요” “길바닥은 싫어요.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살충마 뺏따킴을 구속하라”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벌금제도 없애주세요”

때론 너무도 작고 힘이 없어 하찮아 보이던 벌레 같은 자들이, 아니 벌레들이 거대한 행렬을 짓고 거대한 **목소리**를 내며 시청을 향해 가고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공동 요구안을 전달하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일부 나방들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촛불 집회도 잠시 한 다음 모였을 때와 같이 흔적도 없이 흩어질 계획이었다.

원고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의 집회개최 등 근무지 이탈을 주도한 점, 유인물의 내용 등이 노동조합의 언론/선전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공기업이던 참가인 회사가 민영화되어 컨소시엄으로 인수되고, 전문 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참가인회사의 명예퇴직 실시와 무보직 발령 등 인사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 3개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사권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4년 6월 10일, 대법원 판례 발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레들의 이러한 행동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며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신 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기에 범속치 않다고 이른다. 이 비범한 사람들은 벌레들의 행동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극히 부당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공포에 질린 채!

일단 법리적으로 벌레들의 집회의 자유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아니 설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적한 야산이나 강변 고수부지, 심해, 숲속, 혹은 종묘 공원 귀퉁이 같은데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장소에서 공개적이고 멧멧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폭력적이었다. 무엇보다도 평일인 월요일에 집회를 한답시고 직장을 떠난 것은 고용주에 대한 정말이지 가혹하고 살인적인 폭력이었다. 더더군다나 그 숫자와 대오는 시청에 모인 구청장의 골프 모임 회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압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더 말할 것 없이 부당하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 같이 골프 모임 회원들의 주머니를 약탈하자는 이야기들이고 인간과 시장, 자본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벌레들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질서는 인간의 질서 그 자체였고 벌레들이 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법은 법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더더군다나 벌레들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일부 불온한 인간들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 그것은 골프 모임 회원들에게 깊은 충격과 공포를 주는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부당한 주장이며 행위였던 것이다. 그들은 시청에 모여 정당한 자위권을 모색하였다.

80년대 이후 그 부끄러운 역사를 더이상 되풀이하면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화기, 탱크도 우리 경찰이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좌익을 싹쓸이하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통일조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어떠한 손실이 있더라도, 자원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리를 폭파시키고 학교를 부수고 도로를 끊어놓을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 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실도, 어떠한 자원투입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무기를! 좌익 폭도에 죽음을!> 중에서, 진리경찰)

시청으로 가는 큰 길목에서 벌레들의 끝도 없는 행렬은 거대한 장벽에 봉착했다. 거대한 전경 버스들과 물대포, 그리고 거대한 방패와 가죽 군화-단단한 고무 뒷굽을 댄-로 무장한 사람들. 4월 30일의 행진은 그렇게 끝이 났다. 자세한 경과는 여느 때와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벌레들의 불법 집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방패에 찍히거나 물대포를 맞은 벌레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꼭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진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서인지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도 밝혀지지도 않았다.

명확하지 않은 사태 경과와 비교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골프 모임은 벌레들에게 그해 겨울과 그해 겨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신성한 질서 그 자체이고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진지한 시도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부당하다는 것을 전달했다. 그래도 굳이 벌레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가, 동네 야산에서 조용하게 집회를 한다든가, 신문을 보면서 불평을 한다든가, 진보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다든가, 블로그에 글을 남긴다든가, 뭇하면 네이버 기사에 악플이라도 단다든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 벌레 같은 자들, 아니 벌레들이 부당한 폭력으로 정당한 권리에 맞선다면 우리는 고무 뒷굽으로 폭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 없는 선언에 말하는 벌레들 역시 많은 것을 느꼈음에 분명하다. 벌레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했던 법은 그해 겨울 그 자체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벌레들의 평화는 저들에게는 폭력이었고 저들의 평화는 벌레들에겐 폭력이었다.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는 침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신성한 국가권력이 밤거리를 위협하는 뺨따킴을 체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는 것도 벌레들에게 더 이상 의문으로 남지 않았다. 모든 의문이 풀린 벌레들에게는 선택만이 남아있었다. 온갖 폭

력과 불법, 부당으로 얼룩진 4월 30일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고무
뿔굽의 위협 아래 평화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과연 5월 1
일 벌레들의 행보는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혁혁한 전과**가 자랑스럽게 실려 있는 신문을 읽으며 구청장
은 기분이 흡족해졌다. ‘이런 상쾌한 기분을 즐기기에 커피가 제격
이지’라고 생각한 구청장은 컷노래를 부르며 비서실로 “커피 한 잔!”
을 외쳤다. 구청장은 커피를 좋아했다. 커피의 향과 맛도 그렇거니와
수행 비서들이 커피잔을 수레에 싣고 천천히 탁자로 기어오는 모습은
자신을 마치 고대의 제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
다.

아침의 흡족한 기분은 구청장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
게 하였다. 가장 먼저 벌레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구청의 인건비를 절감한 자신이 다음번 지역구를 노려보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그의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다. 다만 그 기분을
만끽하게 해줄 커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다소 거슬렸다. “커피 빨
리!” 구청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구청장의 열망과 기대감에 비례하여 커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분
노가 커져 갔다. 감히 벌레들이 선구자의, 제왕의, 미래의 지역구 의
원의 아침 무드를 망쳐놓다니! 시계 분침이 어느새 60도 꺾어지자 구
청장은 마침내 비서실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놓아야겠다고 마음을 굳
혔다. ‘뭐 가끔 이렇게 조여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구청장은 결심을
굳히고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거칠게 비서실의 문을 발로 찼다. 구청
장의 분노는 불안감과 당혹스러움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
었다.

(...) (오데사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재빨리 이 사태의 선
두에 나섰고, 파업운동은 다른 공장으로 확대되었다. 7월 1일
부두 노동자 2천 5백 명이 임금을 80코펙에서 2루블로 올릴

것과 노동시간을 1시간 반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7월 16일에는 선원들도 파업에 가담했다. 13일에는 전차 승무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파업노동자 7,8천 명 모두가 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행진 대열을 형성하여 이 공장저 공장을 돌아다녔고, 곧 눈사태처럼 4~5만으로 불어난 대열은 모든 작업을 정지시키려고 부두로 갔다. 도시 전체가 총파업에 휩싸였다.

키예프에서는 7월 21일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여기서도 파업이 일어난 직접 원인은 비참한 노동조건이었고 임금상요구가 제출되었다. 다음날 주물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뒤따랐다. 7월 23일에 총파업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터졌다. 밤사이엔 두 명의 철도 노동자 대표가 체포되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곧바로 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기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역에서는 모든 파업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철로를 점거해 버렸다. (대중파업론 / 로자 룩셈부르크)

“벌레들의 파업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각 신문사의 사설은 벌레들을 조금도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은 불법이었는가?” 공장의 식당 문 앞에 자보가 불기 시작했다. “특히 사업장 점거와 같은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노동부 장관의 엄포 역시 듣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4월 30일과 같은 평화적인 해산절차가 각 공장에서 반복되었다. 다만 해산된 것은 관리자들이었다. “타당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하면 협상에 임하겠다.” 골프 회원들이 크게 선심을 쓰듯 기자회견을 가졌다. 벌레들은 타당한 절차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포탈사이트 지식 검색을 이용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노조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사측과 수다를 떨다 냉각 기간을 거쳐 안방에서 TV를 보며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란 이야기였다. 결국 골프 회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말을 꺼낸 본인들뿐이었다.

자신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벌레들이 냉정하고 야멸차게 거절했다는 사실은 골프 모임 회원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옛말에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장 4월 30일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벌레들은 어제 짓밟혔던 뒷굽에 다시 짓이겨져야 할 것이다. 준엄한 법과 질서를, 진정한 폭력이 무엇인지 벌레들에게 가르쳐 주자! 골프 모임의 긴급회의는 짧고 강렬한 결의와 함께 끝났다. 경찰서장과 뺨따킴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 행진 도중 시위대는 4,500여 명의 전투 경찰과 마주쳤으나, 경찰은 중장비를 앞세운 4만 명의 시위대에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알았고 따라서 시위대가 행진하도록 둘 수밖에 없었다. (...)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 구해근

뺨따킴과 고무 뒷굽들의 충격적인 패배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진정한 폭력을 보여주겠다던 그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걸 본 벌레들은 승리를 낙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골프 모임 회원들은 벌레들의 저 **친박한** 낙관을 경멸했다. 폭력이란 것이 꼭 수준 낮은 물리력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물론 수준 낮은 패를 꺼냈다가 박살난 후라 얼굴이 서지 않는 상황이긴 했지만 역전의 용사들은 사소한 패배 하나에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 보였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공세가 시작되었다. 월급 5000원을 받는 풍뎡이 김만복 씨에게 일주일 파업의 대가로 50만 원의 가압류 딱지가 날아왔다. 김만복 씨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 골프 모임 회원들은 김만복 씨가 **충격과 공포**를 느끼기를 원하는 듯했다. 확실히 김만복 씨는 충격을 받기는 했다. 기계와 공장의 주인들은 항상 그를 월급 5000원 짜리 인생—엄밀히 말해서 인생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대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했을 뿐인데 그에게 떨어진 50만 원의 가압류 딱지는 대체 무엇일까? 가압류 딱지는 김만복 씨에게 일종의 깨달음의 **충격**을 주었던 것이 분명했다.



깨달음은 언건 말건 사람은, 아니 벌레는 먹어야 살고 자야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법. 월급을 묶고 재산을 압류해서 굶기고 집에서 내몰면 결국 백기를 들 것은 벌레들이 분명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비록 자신들도 하루하루 떨어지는 주가와 영업장부에 그어지는 붉은 줄이 정말이지 심장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개미와 베짚이의 교훈을 되새기며 희망을 가졌다. 여름 내내 모아둔 양식이 있는 개미와 가진 거라곤 성대 하나밖에 없는 베짚이 중 누가 추운 겨울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며.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듯 질긴 놈이 승리한다면 승리는 가진 자들의 것이 될 것이었다.

노동자 평의회가 많은 공장들에서 구성되었다. (...) 노동자 평의회는 두나우 지방의 신발 공장 면사 방적 공장, 골드베르게르 직물 공장, 던치치 피혁 공장 등에서 건설되었다. (...) 평의회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조달했으며 자신의 결정에 따라 진료소와 병원 등지에 이미 식량을 공급했거나 공급할 예정이다.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 1956년 헝가리 혁명 / 크리스 하먼)

가진 자들의 소박한 희망이 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5월 중순 점거가 벌레 식품 업체와 농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벌레 거주 구역들에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퇴거 거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무차별적인 약탈이 식품 판매소에서 자행되고 있고 벌레 거주 지역은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하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는데 일단 벌레들은 자치 조직을 꾸려서 음식물과 주거지를 분배하였다. 다만 이 분배 과정이 골프 회원들의 정당한 이윤을 제공하지 않고 나아가 신성한 사유 재산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극악한 불법 행위기는 했다.

이 광경들은 기묘하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풍경이면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풍경이었다. 식량을 옮기고 까데기하고 관리하는 벌레들과 음식물을 고르고 줄을 서서 반아가는 식품 판매소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벌레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다만 그들을 관리하고 지시를 내리고 주관을 두들기며 음식의 흐름을 통제하던 것이 벌레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사소하게 달랐다. 이 사소한 차이가 정상 사회와 무법적인 약탈의 법적 구분점이 되고 있었다.

불법이건 초법이건, 벌레들은 골프 회원들이 있건 없건 먹고 살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의 생산을 스스로 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은 생존의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이것이 혹시 생산 전반으로 번져나간다면? 비록 자신들이 벌레와 벌레 같은 자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영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화**가 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신화가 깨어지면? 저들을 벌레 같고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규정하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버려지들이란 말인가? 말하는 벌레들의 등장을 축복으로 여기던 사람들은 이제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고 싶어졌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지금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말하는 벌레들이 있기 전까지 벌레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거대한 **불길**이 그들에게까지 옮겨 붙기 시작하면 이 화재는 **세상**을 끝장낼 것이라는 결론에 벌레들과 골프 모임 회원들 모두 도달할 수 있었다. 말하는 벌레들의 이야기에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한 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온건한 사장들과 공무원들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골프 모임 내에서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나 때리고 벌레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려는 것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골프 모임의 주도권은 골프 모임의 가장 강경한 분과, 진정한 폭력을 보여주려다 체면은 좀 구겼지만 절치부심하고 있는 고무 뒷굽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다.

새로 골프 모임 친목회장에 추대된 경찰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벌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번 벌레 사태는 벌레들과 벌레 같은 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이다. 87년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양보해 왔고 다행히도 벌레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여 반걸음 앞으로 진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 벌레들마저 우리에게 한 걸음씩 후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뒷걸음질을 앞으로 돌려 저들을 밟아 몽개지 않으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87년의 뒷걸음질을 이제는 되돌릴 때다. 고무 뒷굽들의 결의는 어느 때보

다 드높았다.

부르주아지는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그들은 즉각 약 5000명가량의 소규모 백군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했다. 그 부대의 주요 병력은 경호부대(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부대는 핀란드 출신의 청년들로 구성된 독일군 제27소총대대를 말한다.) 출신 병사와 스웨덴 자원병, 부르주아지, 소부르주아지 출신의 젊은이들이었다. 스웨덴 출신으로 예전의 러시아군 장군이었던 만네르하임은 이 부대의 지휘를 맡으면서, “하룻밤 내에 구질서를 부활하겠다”고 천명했다. -1918년 핀란드 혁명기의 백색테러에 관련 (러시아 혁명의 진실 / 빅토르 세르쥬)

대화와 타협, 배려있는 주장, 노사화합을 노래하던 공익 광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빈자리를 일하지 않고 공장과 사회를 파괴하는 벌레들을 몰아내야한다는 광고들이 메우기 시작했다. 뉴스 끝자락의 경제 전문과의 대답은 청년실업이 벌레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로 채워졌다. 벌레들의 폭력 집회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하고, 드라마에서는 불륜과 불치병에 고통 받던 재벌 3세들의 고난에 벌레들의 불법 파업이 또 하나의 고뇌로 등장하였다. 교회에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진 성자를 찬양하며 벌레들의 죄를 어떤 성인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교했다. 어느덧 홍수와 가뭄, 태풍마저도 벌레들의 책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벌레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미디어는 벌레 없는 세상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벌레가 없으면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에 따라 노동 조건도 나아지고 월급도 오르게 될 것이다. 벌레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설들에 사람들을 위한 주택들이 세워져 서민들도 (24년 정도만 빼빼지게 할부금을 갚으면) 마이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거기에 간단하기까지 하다. 골프모임은 지금까지 가진 것 없

고 보잘 것 없고 차별받고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명확하고 간단한 실천을 요구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차별받고 짓눌려 있는 저들을 뺀 것이었다.

나의 소망이란 별 게 없어요
나는 말썽 많은 정유업자는 되기 싫어요
나는 단지 미국을 원해요, 그리고 중국을 저당잡고 싶어요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5대양에 떠 있는 섬들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들만 내게 준다면 나는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난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땅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겠어요
<제이 고울드의 작은 소망>

(알려지지 않은 미국 노동운동 이야기 / R.O. 보이어 & H. M. 모레이스)

골프 모임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에서는 어느 때처럼 벌레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을 보이콧했다. 심지어는 네이버신(神)조차 벌레들에 대한 어떠한 검색 결과도 내놓지 못했고 블로그 등에 오르는 글들도 실시간으로 삭제되었다. 평소와 다른 요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는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었다. 벌레들의 싸움이 확대되고 그들이 장악하는 생산설비들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이 통제하는 운전기와 방송 설비, 서버 역시 늘어났다. 그것들은 벌레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더 이상 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길 기약 없이 소망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게 된 벌레들은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벌레들은 말했다. 스스로의 결정과 합의에 의해 공장

이 굴러가듯 사회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골프 모임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의 아 니 생산자들의 손 안에 들어와야 한다. 우리를 밟아 터트리려는 고무 뿔굽에 맞서 우리는 스스로 뭉쳐야하고 무장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자신의 욕망들—짚리지 않는, 굽지 않는, 죽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욕망이 관철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것 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비교적 명확했다.

다만 그 실천은 고무 뒷굽들이 제시하는 실천보다는 좀 더 어렵고 힘든 것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골프 모임과 그들을 수호하는 고무 뒷굽에 맞서야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월급, 승진, 정규직, 가족, 건강, 삶, 죽음, 모든 일상을 잃을지도 모르는 도박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찬란한 부도수표로 향하는 포장도로와 내일로 향하는 가시밭길 사이에서.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뿌리는 살충제를 생산하던 공장, 지금은 잡초가 무성한 그 공장에 공장 폐업 이후 이대 앞에서 매운 닭꼬치를 팔던 사장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에 일하기 위해 그 뒤를 따랐다.

고무 뒷굽들이 벌레들을 먹어치울 준비가 끝났다. 그것은 뿌리는 살충제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돌고 있고, 일선 군부대와 경찰 병력들, 그리고 작업복 대신 하얀 마스크를 쓴 구사대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벌레들을 대신해서 직공장을 돌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기에 이들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We'll meet again
Don't know 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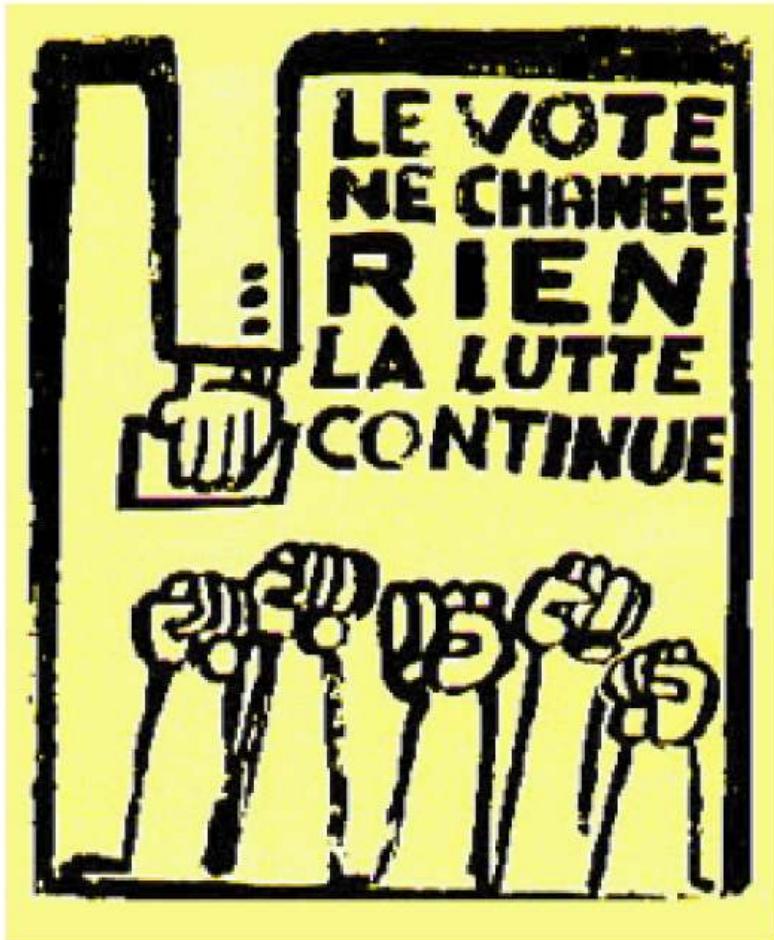
Don't know when
But I know we'll meet again
some sunny day

고립된 사업장들이 하나하나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용달차의 꿈 무니로 뿌리는 살충제가 구름처럼 날아오르고 그 뒤로 파리채를 든 사람들이 옛날 모기차 뒤를 쫓던 추억을 되새기며 달려 나갔다. 그리고 그곳마다 벌레들의 시체가 작은 산을 이루었다. 처음에 살충 행위는 쟁의를 하고 있는 벌레들의 명단을 관공서에 허가를 맡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폭주하는 업무로 인해 일주일 후 그것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학살 후 1달 내에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고(1달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운 슈퍼나 쌀가게에서 구입한 벌레 시체 수거용 비닐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여름이 채 지나기 전에 벌레들의 저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고립되었다. 사냥꾼들을 피하기 위해 벌레들은 산과 들로 흩어졌다. 진화의 위대한 힘은 벌레들의 생존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 벌레들을 재조직하였다. 살아남은 벌레들과 새로 태어난 벌레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파견된 곤충학자들은 살아남은 벌레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Keep smilin' through
Just like you always do
Till the blue skies drive
the dark clouds far away

벌레들의 저항이 점점 분쇄되어 감에 따라 골프 모임에서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고 여유를 찾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는 벌레들이 사라짐에 따라 다소 우울한 감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저



임금에 장시간 일하는 벌레들이 없어졌으니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대로 가면 국가 경쟁력이 위기라는 등 하는 전망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이 위기를 골프 모임은 슬기롭게 대처하였다. **벌레가 없다면 새로 하나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벌레들의 시체를 밟고 공장으로 돌아온 일하는 사람들에게 벌레들이 하는 일들이 주어졌다. 벌레들이 하는 일들과 함께 벌레들에게 주

어지던 임금과 노동 시간/강도 역시 선물되었다. 마이홈과 3만 불의 소득을 갈망하던 사람들은 반발하였으나 벌레 진압을 통해 강화되고 단련된 고무 군화들은 이들의 반발을 쉽게 짓이겨버렸다. 몇몇 사람들은 어제까지 동료였던 구사대들에 의해 머리에 박달나무 몽둥이가 쫓히면서 벌레들을 잠시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고 이제 외침은 그들에게 들릴 수 없었다.

So will you please say hello
To the folks that I know
Tell them I won't be long

벌레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벌레들의 사상이라고 지목된 사상들을 탄압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벌레적인 조직이라고 지목된 노동조합들이 해산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름의 학살을 주도했던 장군이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소문이, 다음 선거는 장충 체육관에서 12라운드 매치로 한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벌레 같이 일하고 벌레처럼 먹고 사는 것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왔다. 얼마 안가 그것은 나쁜 영향이 아니라 특정한 영향이라는 문구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적게 먹게 된다면 아마 재고품 창고에 쌓여 있는 벌레용 생산 기기들을 다시 꺼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직도 다락방 구석에 있는 벌레 주택을 다시 임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They'll be happy to know
That as you saw me go
I was singing this song

늦여름, 거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구청 벌레들에 대한 진압이 종료되었다. 우리는 간만에 다시 구청에 출근했다. 출근해서 먼저 벌레의 시체들을 모아서 통에 담아 구청장의 열대 화초 곁에 묻었다. 그렇게 벌레들은 열대 화초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밀렸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로 갔다. 그런 내 뒤통수에 대고 누군가가 말했다.

“야, 물도 줘 주지?”

We'll meet again
Don't know where
Don't know when
But I know we'll meet again
some sunny day

후기

2004년 10월, 헤비 메탈 텍스트 밴드 도마뱀의 꼬리 해체 이후 밴드 리더이자 컨셉터였던 LT는 깊은 실의와 방황, 알콜로 가득찬 우울한 재충전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던 그가 2007년 여름 서대문구의 낡은 호프집에서 맥주를 찾다가 우연히 비슷한 이유로 호프집을 찾은 퇴물 스타일리스트 K를 만나 합석하게 된다. 맥주 4000cc와 새로 시킨 골뱅이 소면 안주 이르러 이들은 넷워크를 뒤엎어 놓을 작품을 쓰자라는 다소술기운에 가득 찬 모의를 하게 되어 의기투합, 2007년 8월 이들은 이후 말하는 벌레라고 불리게 된 3부작의 첫 번째 편-말하는 벌레, 말하는 벌레, 말하는 벌레-의 파일럿 텍스트를 제작하여 네이X, 이X루 등 유명 블로그 사이트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독자들과 평론가들은 이들의 파일럿 텍스트에 대해서 개그가 빠졌더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LT와 K는 절망했다. 글의 영혼과도 같은 개그가 빠진 이러한 글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책 회의를 겸해 마포구의 돌솥비빔밥집을 찾은 그들 앞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만담계의 문을 두드리나 그 높은 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아마추어 만담가 **훈**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이들은 그날 저녁 2차를 겸한 파전집에서 프로젝트 밴드 **말하는 벌레**를 결성하게 되고 다음날 새벽까지 3부작의 개요를 구상하고 그 그룹의 이름을 딴 첫 작품 이름을 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황금 트리오의 단합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룹의 리더 LT의 독선적인 스토리 구상에 K와 훈은 반발하였고 다소 90대 초반 감성의 훈의 개그 역시 K에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 훈은 K의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서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멤버들 사이의 정치적 견해 차이까지 겹쳐 연재 3회 만에 밴드는 실질적으로 해체되게 된다.

연재 성공에 눈이 멀어 있던 LT는 이러한 결말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수익금 배분 문제를 미끼로 하여 K와 훈을 유인하여 납치, 자신의 저택 지하실에 둘을 감금하였고 연재를 재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벌레의 위태로운 재결합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문과 불규칙한 영양 섭취, 그리고 중노동에 가까운 작품 활동과 LT가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컨셉에 K와 훈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고 연재 6회를 즈음하여 결국 훈은 사망한다. 그 시체는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리 수거되어 처리되었으며 3개월 후 경기도의 어느 매립장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다.

남은 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로테스크하고 절망적인 연재를 계속하였다. K는 비록 감금당한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완결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LT에 동의하였고 이것이 이 가혹한 상황에서 연재가 이어지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밀린 월세 때문에 인근 지구대 경찰이 LT의 저택에 들이닥치면서 이 위태로운 연재는 중단되게 된다. 연재 9회만의 일이었다.

납치, 살인, 월세 및 전기세 체납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은 무혐의로 판결되었다-로 LT는 구속되었고 같은 해 열린 재판에서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남은 마지막회의 연재 작업은 K의 손에 마무리되었다. 그 작업은 영등포 교도소의 면회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들이 작품 완성의 순간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마지막 원고의 탈고가 끝나고 LT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K는 후속작을 몇 번 시도해 보았으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빗더미에 올라 중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실종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하는벌레는 소리소문 없이 해체되었다 ...

>> 뽕소리는 이쭈 하고

연재의 기원

연재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 별 거 없고 블로그 이름을 한글 하나를 써보자 라는 소박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블로그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 하는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 사실 벌레는 제가 자주 쓰는 욕입니다. 우리집 개가 귀찮게 굴거나 뉴스를 보다가 나쁜 놈들이 나오면 저런 벌레 같은 놈들! 하곤 하죠. 가족들과 있을 때도 부담없이 쓸 수 있어서 좋아하는 욕입니다 ...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욕들은 내가 쓰는 것보다는 뉴스에 나오는 자들이 쓰기에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별볼일 없고 약하면서 숫자는 많아 웅웅 거리는 놈들. 그래서 충동적으로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충동적이란 것의 증거로 요즘도 뉴스를 보다가 심심찮게 벌레 같은 놈들을 남발하니까.

여튼저튼 다시 돌아와 어떤 글을 쓸까. 벌레가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벌레를 좀 더 이해하게 될까. 벌레들이 사람처럼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될까. 혹은 비성서적 존재로 극단주의적 종파들의 테러를 당하게 될까. 나름 생각하다가 이걸로 SF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턱대고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후회했지만.

구상

처음 구상은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는 벌레들에게 적대적인, 그러니까 인류를 위협하는 벌레들을 지구를 수호하는 모 계급들이 물리치고 지구를 평화를 되찾는다 ... 는 요지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여차저차해서 ... 다소 온정적이게 쓰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뭐 그렇게 원구상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은 거 같군요. 시작을 본원적 축적이 아닌 노예제로 삼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역시 끝장나게 장황해질 거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오타와 비문

사실 글에속서 오타와 비문을 심층심게 찾아볼아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퍼브지 대학의 연결구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퇴열어 있는가 하것는은 중하요지 않고, 첫제변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것는이 중하요다고 합니다. 나머지 글들자은 완전히 영진창망의 순서로 되어 있지을라도 여분러은 아무 문없제이 이것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현대 과학의 성과에 힘을 얻어 오타와 비문을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속작

3편 넘어가는 연재물을 완결지어 본 것도, 그것도 픽션을 쓴 것도 처음인 거 같군요. 쓸 만하고 재미있고 법적 심의에 걸리지 않을만한 이야기로 논픽션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쓸지야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많은 글들이 그렇지만 논픽션은 더욱이 리플이 짠 편이라서 염려되기는 하네요.

음 다른 얘기

막상 후기를 쓰려니 쓸 내용이 없네요. 궁금한 건 없나요?